효성, 대형 풍력발전단지 건설

동서발전과 MOU 체결 … 2010년 독자 시스템 도입 26MW 가동

효성이 동서발전과 함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나선다.

효성은 한국동서발전과 9월15일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강원도 강릉시에 26MW급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.

이에 따라 2009년 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일대에 2MW급 풍력발전기 13기를 설치하는 작업에 착수해 2010년 말에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.

효성은 독자기술로 개발해 독일 DEWI-OCC로부터 국제인증을 받은 풍력발전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풍력발전기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은 "양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발전설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 것"이라며 "앞으로 동서발전은 풍력을 비롯한 해양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 등 신·재생 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적극 투자할 것"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–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9/15>